

'어린이의 발견'과 바우하우스: 모더니즘에 나타난 '순수함'의 숭배

'Discovering child' and the Bauhaus: Cult of Innocence in the Modernism

주저자 : 김진경 (Kim, Jin Kyong)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랩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2. 바우하우스와 프뢰벨의 교육방법론의 연관성

- 2-1. 교육 대상에 대한 관점
- 2-2. 놀이를 통한 교육
- 2-3. 기초적인 기하학적인 형태의 탐구

3. 바우하우스의 출발점과 개혁교육학

- 3-1.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학교'로서의 유치원
- 3-2. 개혁교육학과 '아동으로부터의 교육'

4. 어린이와 모더니티

- 4-1. 예술가로서의 어린이
- 4-2. '천진난만함'의 신화
- 4-3. 어린이 미술 혹은 순수함에 대한 강박증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논문은 프뢰벨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아동교육의 맥락과 바우하우스 교육의 연관성 속에서 바우하우스의 이중적인 꿈을 조망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우하우스는 특히 기초과정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의 틀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지식을 버리고 마치 어린이와 같은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요컨대, 바우하우스는 프뢰벨처럼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서의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치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이들의 '순수함'에 대한 집착은 차라리 일종의 강박증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린이미술이 '천진난만함'이라는 신화 뒤에 숨기고 있는 가학적이거나 독재적인 요소는 모더니즘에도 그대로 겹쳐진다. 더욱이, 그들이 기대고 있었던 실험적인 교육으로서의 아동 교육은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에서 양분을 얻어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니만큼, 처음부터 바우하우스의 민주적인 이상에 부합할 수 없었다. 바우하우스가 아카데미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동교육과의 연계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우하우스는 아동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꿈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nlighten two-faced desires of the Bauhaus, revealing that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hild education rooted in Fröbel. The Bauhaus declared to disconnect with the traditional education standing for Academies and asked students to go back to such 'innocence' as children had. The faculty of Bauhaus tried to understand of the essence of the world through primary geometrical forms as 'purity' without any inessential things as Fröbel did. Their attempts not to admit any nonessential things, however, and clinging to purity was rather a sort of neurosis. The modernism is not different from the child art hiding sadistic and dictatorial elements behind the myth of 'innocence'. Considering the child education was born and grown with nutrition from the bourgeois development, it was not compatible with democratic ideals of the Bauhaus. While the new types of schools for children provided an excellent preparation for the Bauhaus to initiate a new design education, people of the Bauhaus were going toward a different direction from aspiration of the bourgeois, strong supporters of the new schools.

(Keyword)

Bauhaus, child art, modernity

1.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근대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늘 서장을 장식하는 바우하우스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해석되어왔다. 최초의 체계적인 디자인 교육 기관으로, 또는 수공예 공방으로, 노동협동체 조직으로, 제품의 실험 연구소로, 전위 무대 예술의 거점으로 언급되는 바우하우스는 일의적인 해석이나 정의가 불가능할 만큼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바우하우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단선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우하우스가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입체파, 구성주의, 미래파 등 아방가르드들의 총합이라고 할 만큼 바우하우스에는 실험적이고도 진보적인 예술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치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프리벨Friedrich Froebel이 최초로 유치원을 세운 1837년 이후, 유치원은 점차 확장되어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바우하우스를 설립했던 1919년에는 이미 유치원이 80년 이상 유럽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만 브로스터만Norman Brosterman에 의하면 '유치원은 모든 실험학교의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수업에 영향력을 미쳤다'¹⁾고 한다. 이처럼 유치원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다면, 수십년이 지난 후의 바우하우스 교육자들은 유치원의 방식으로 교육받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그 영향 하에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이탈리아로 가서 유치원에 다닌 경험이 있고,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프리벨 식으로 교육받은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 또한 10여 년간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 관계했던 인물이었다.²⁾

이 연구는 우선, 바우하우스 교육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과정과 프리벨 교육방법론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한다. 1) 교육의 대상(학생 혹은 어린이)을 대하는 관점에서, 2) '놀이를 통한 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방법론에서, 3)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탐구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유사한 측면을 보이며, 프리벨의 교구인 '은물과 작업'을 이용한 작업결과물이나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어진 생산물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바우하우스가 프리벨에게서 받은 영향을 고증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좀더 면밀히 파악하려는 데 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면, 다시 말해 적극적인 것이었다면 바우하우스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프리벨을 차용한 것일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타난 '어린이 미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어린이'의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이를 통해 '어린이 숭배'의 개념과 바우하우스의 이상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1) Norman Brosterman, 프리벨교육연구소 옮김, <유치원의 발명>, 프리벨, 2003, p. 120.

2) N. Brosterman(2003), pp. 122-133 참고.

2. 바우하우스와 프리벨 교육방법론의 연관성

2-1. 교육 대상에 대한 관점

어린이를 바라보는 프리벨의 관점은 그가 설립한 어린이 학교, 즉 유치원을 '어린이 정원kindergarten'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아동기는 일종의 '씨'와 같은 것으로, '인간 본성의 개화'를 위해서는 이를 자연의 법칙을 따라 가꾸어야 한다. 이러한 프리벨의 사상은 낭만주의 교육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간교육을 위한 '도야'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외부적인 지식 전달에 반대하고 내부로부터의 조화로운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³⁾

프리벨에게 기존의 영아학교는 아동을 '조그마한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지적인 조속함'을 강요하는 곳이었다. 그는 읽기, 쓰기 등을 유아에게 지도하고 있는 영아학교를 유아의 지적인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린이이며, 어린이의 본성, 그리고 어린이를 강하게 하며 발달시키고 이끌어야 하며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⁴⁾

요하네스 이텐의 교육사상 또한 이러한 관점과 맥이 닿아 있다. 바우하우스로 오기 전, 젊고 진취적이었던 학생의 영향을 받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신선하고 독창적인 그림과 작문, 노래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눈떴던'⁵⁾ 고등사범학교 시절 그의 경험은 그의 교육사상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텐은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내면적 본질'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프리벨이 식물을 가꾸듯 어린이들의 천성을 보호하고 가꾸는 '정원사'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이텐 역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질을 존중하려 애썼던 것이다.

2-2. 놀이를 통한 학습

프리벨의 교육이론에서 '놀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의 일상은 놀이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냄새맡고 맛보는 일상의 모든 활동이 외부세계를 탐구하는 작업이자 놀이이다. 프리벨은 유아교육의 근본이 무엇보다도 유아를 잘 놀도록 인도하는 일, 즉 놀이로써 인도하는 일 내지는 그를 즐겁고 행복하게 함에 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아동의 생명을 육성하는 것은 놀이'이기 때문이다.⁶⁾

프리벨이 고안한 '은물과 작업Gifts and Occupation'은 그의 이러한 사고가 반영된 교구이자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생각은 바우하우스 기초과정의 선생이었던 이텐과 알베르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텐은 "놀이는 기쁨이 되고 기쁨은 작업이 되며 작업은 놀이가 된다."⁷⁾는

3) 광노의, <프리벨의 유아교육이론 연구>, 학민사, 1990, p.25 참조.

4) 정선아, "프리벨 아동중심 교육의 의미", <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부산여자전문대학 보육학과, 2000, pp. 20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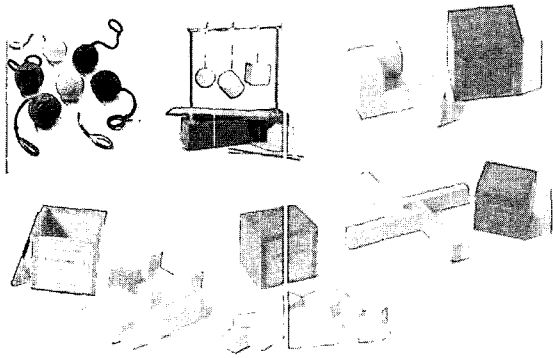
5) Johannes Itten, *Design and Form: The Basic Course at the Bauhaus and later*, Litton Educational Publishing, 1975, p. 6.

6) 광노의(1990), p. 119.

인금을 통해 놀이와 작업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했고, 이텐이 떠난 후, 모홀리 나기와 함께 기초과정을 맡았던 요제프 알베르스 역시 작업의 출발점이 '놀이'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를 탐구하는 방식으로서의 놀이와 실험, 그리고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이 지식이 아닌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다는 그의 생각은 프리벨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2-3. 기초적인 기하학 형태의 탐구

프리벨은 1835년에서 1840년 사이에 교육적인 놀잇감인 '은물'과 작업을 창안한다. 은물과 작업은 입체, 면, 선,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하학적 교구로, 은물은 어린이가 통찰력을 길러주어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작업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가장 단순한 활동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림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1은물-제6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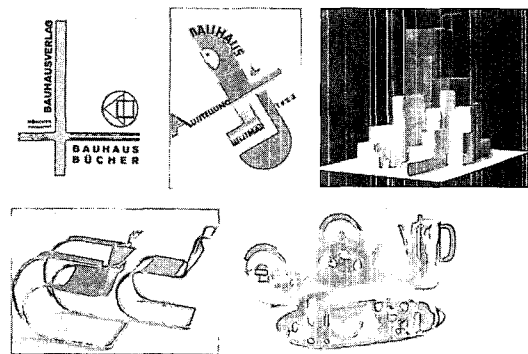
우선, 제1은물에서 어린이는 부드러운 털실로 된 여섯 개의 공을 만난다. 프리벨에 의하면 공은 '완전한 하나의 전체'이자 '만물의 원상'으로, 어린이들은 공을 가지고 놀면서 사물, 공간, 시간, 색깔, 움직임, 자력, 연합, 독립, 중력에 관한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⁷⁾ 제2은물에 이르면, 나무로 만든 세 가지의 입체 - 구, 정육면체, 원기둥 - 가 어린이를 맞는다. 구에는 평평한 면이 전혀 없고 정육면체에는 곡선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두 형태는 각각 완벽하면서도 정확히 상반되는 지점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이 원기둥이다. 곡선과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원기둥은 운동과 정지, 다양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은물은 일종의 '변증법적 구체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이야기한다.¹⁰⁾

"사물의 외양을 이해한 후에 어린이들은 사물을 내부를 관찰하고 싶어한다."¹¹⁾고 생각한 프리벨은 제1은물과 제2은물을

이해한 어린이에게 사물을 분해하고 다시 조합하는 블록의 형태로 구성된 은물(제3은물에서 제6은물까지)을 제시한다. 제3은물은 한 변이 6cm인 정육면체를 세 개의 수직선(가로, 세로, 높이)으로 나눈, 작은 정육면체 8조각으로 구성되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외면과 내면, 통합과 나눔을 가르쳐준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조립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장난감과 달리, 단순한 정육면체 조각으로 구성된 3은물은 해체와 조립이 자유롭다. 3은물은 사물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에게 그 내부를 쉽게 보여줄 뿐 아니라 의자, 침대, 사다리 등 일상의 사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제4은물은 전체적으로 3은물과 같은 정육면체의 형태를 띠지만, 각각의 조각은 1:2:4의 비율을 가진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제5은물, 제6은물 등 단계를 지날수록 육면체는 더욱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어린이는 복잡한 형태의 사물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프리벨은 이외에도 구멍뚫기, 바느질하기, 종이접기, 찰흙 빚기 등이 포함된 11종의 '작업'을 고안해내었는데, 전체적으로 은물과 작업의 체계를 보면 형태에서 시작해 평면에서 직선으로, 직선에서 점으로 수렴(은물)했다가 다시 점에서 직선으로, 평면에서 형태로 나아가며 최초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은물에서 털실로 짠 공을 쥐었다가 놓치기를 반복하며 세계의 원상으로서의 구의 형태를 체험했던 어린이는 마지막 작업에서 찰흙으로 구의 형태를 빚으면서 다시금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세계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프리벨의 이러한 태도는 자연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요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바우하우스 마이스터와 학생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인 Δ \square \circ 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우하우스의 인장, 심벌 뿐 아니라 포스터, 책 표지, 심지어 제철이, 주전자와 같은 제품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이 이들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 보였던 관심은 거의 '집착'에 가까워 보이기가 한다. 이러한 집착 또는 열망은 지역적 경계, 시대적 경계를 뛰어넘어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형태를 발견하고자 하는 바우하우스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림2] 바우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과 제품들

에서 재인용.

7) Froebel Web, "Influence of Friedrich Froebel on Johannes Itten", <http://www.geocities.com/Athens/Forum/7905/web2018.html>

8) '은물(英 Gifts, 獨 Spielgabe)'이란 선물, 즉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어 주신 은혜로운 놀이선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그의 종교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교육사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광노의(1990), p. 129.

9) N. Brosterman(2003), p. 42

10) N. Brosterman(2003), p. 46 참조.

11) Friedrich Froebel, *Pedagogy*, p. 118, N. Brosterman(2003), p. 50

칸딘스키는 그의 저서 <점·선·면>에서 예술의 '기본요소 Grundelemente'와 '부차적 요소 Nebenelemente'를 구분하면서, '모든 작품의 최초의 시작에 기여하는, 또 이들 없이는 이 시작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요소'로 기본요소를 정의한다.¹²⁾ 칸딘스키에 의하면, 이들 기본요소는 '그래픽을 위한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재료'이기도 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만물의 원상'을 발견하고, 이들 기본 형태를 조합해 무수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은물과 작업'의 기본 원리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학적 태도나 방법론의 측면에서 프뢰벨과 바우하우스가 어떤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80년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양자가 유사한 결과물을 내었고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논의를 끝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양자의 유사성에서 시작하는 이 논의는 양자의 연관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그로부터 바우하우스가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3. 바우하우스의 출발점과 개혁교육학

3-1.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학교'로서의 유치원

바우하우스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포부를 안고 출발했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1923년에 발표된 그로피우스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시작된다.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은 이미 인식 가능하다. (...) 자아를 세계에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렸던 이중적 세계에 대한 낡은 상(象)은 급속히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그 대신, 모든 반대되는 세력이 절대적인 균형 상태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통일에 대한 관념이 떠오르고 있다. (...) 이제 어떤 것도 더 이상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형태를 하나의 관심의 구체화로, 모든 작업들을 우리 자신 내면의 표명으로 인식한다. 내적 필요에 의한 산물로서의 작업만이 정신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기계화된 작업은 생명이 없고 이는 생명없는 기계에만 적합할 뿐이다. 그러나, 기계-경제가 기계적인 노동의 짐으로부터 지식인을 해방시키는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은 노예화되고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해결책은 외부적 환경의 개선보다는 개인이 그의 작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있으며, 이 새로운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¹³⁾

12) Wassily Kandinsky, 차봉희 옮김, <점·선·면-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하여>, 열화당, 2000, pp. 14-15.

13) Walter Gropius, "The Theory and Organism of The Bauhaus", translated of "Idee and Aufbau des Staatlichen Bauhauses Weimar",

윌리엄 모리스를 연상하게 하는 이 글에서, 그로피우스는 '분열-고립'과 '통일'을 대립시키며 바우하우스가 (자칭해서) 짊어질 이중적인 과제를 던지지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모리스가 꿈꾼 것처럼 길드로 대표되는 중세 장인들의 작업정신으로 되돌아가는 동시에 대량생산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시대의 시각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글의 서두에서 '고립'과 '통일'로 선언된,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의 두 축은 아카데미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교육 실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며,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의 위상은 바로 이 양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립된다. 그로피우스는 '어제의 정신을 대표하는 도구가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카데미가 예술가를 산업사회와 수공예 세계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예술가를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¹⁴⁾

고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통일'의 가치를 끌어온 것처럼, 아카데미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교육실험과의 연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바우하우스의 궁극 목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상징할 수 있는 형태를 발명-창조해낼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라는 그의 언급에서 드러나듯, 바우하우스는 처음부터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는 학교의 "교육 분야가 모든 측면으로 확장되고 인접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우하우스가 유치원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순수한unspoiled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몬테소리 학교와 같은, 실제적인 작업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은 전인적인 개발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¹⁵⁾

'몬테소리 학교와 같은, 실제적인 작업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란 프뢰벨의 맥을 이어 노작교육을 강조한 유치원을 지칭한다. 따라서, 바우하우스는 디자인 교육의 서장으로 서뿐만 아니라 세기 초 교육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2. 개혁교육학과 '아동으로부터의 교육'

1900년대를 전후해, 기존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1890-1933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개혁교육적 시도는 '개혁교육학 Reformpädagogik'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를 테면, 영국의 세실 레디 Cecil Reddie가 설립한 '에보흐호움'(1889)이나, 스웨덴의 엘렌 케이 Ellen Key가 출간한 <어린이의 세

Herbert Bayer, Walter Gropius, Ise Gropius (Ed.), *Bauhaus 1919-1928*,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75, p. 20.

14) W. Gropius(1975), p. 21.

15) W. Gropius(1975), p. 29.

기>(1900), 독일의 베르톨트 오토Berthold Otto가 저술한 <미래학교의 교과>(1901), 그리고 이에 기반해 이를 실행에 옮긴 '가정교사학교'(1906), 게오르크 케르셴스타이너Georg Kerschensteiner의 <독일 소년의 국민교육>(1901) 등이 이 시기에 나타난 교육 개혁의 움직임들이었다. 몬테소리가 로마 대학 정신병원에서 정신박약아를 돌보면서 어린이의 놀이 욕구를 발견하고 '어린이의 집'을 설립해, 놀이 욕구에 따른 교육방법을 적용한 것도 이 무렵(1907)이었고, 미국에서 존 듀이John Dewey가 시카고 대학에 실험학교를 설립(1894)하고 <학교와 사회>(1899)를 저술하는 등의 활동의 펼친 것도 이와 유사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들 (교육)개혁가들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었지만, 이후 1920년대 중반부터 헤르만 놀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새로운 교육에 관한 자료 정리와 개별적인 교육운동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 이러한 점에서 놀과 그의 제자들은 개혁교육학의 '창조자' 또는 '발명자'로 언급된다.¹⁶⁾

정기섭에 따르면, 개혁교육학의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전통적인 학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아동 이해에 기초한 교육방법'이다. 기존의 학교에 대한 비판은 케이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아동교육상의 최대 오류는 아직도 변함없이 어린이를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그리고 교육자의 손에 의해 자유로이 만들고 개조되는 하나의 무기적(無機的)인 외형적인 물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¹⁷⁾ 이에 대해 개혁교육학에서는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을 내세우며 단순한 지적 수용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생활의 내용을 접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 지역과 시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던 이들의 노력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스스로 행하는 교육',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표현력이 중시되는 노작교육'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정기섭은 '개혁교육학의 문화와 전통적 교육에 대한 비판은 발전하는 기술 문명에 직면해서 자연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개혁교육학의 목적은 새로운 교육을 통한 삶의 개혁'이라고 요약한다.¹⁸⁾

타락한 문명에 대한 비판, 자발성의 강조, 활동 또는 작업을 통한 교육과 같은 이 시기의 특징은 루소에서부터 페스탈로찌, 프리벨로 이어지는 교육사상의 흐름에 빚지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 문명에 반대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고 어린이에게 자연은 최고의 교사라고 주장한 루소의 가르침은 페스탈로찌에게 '자연이 진리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물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선, 곡선, 각 등을 마치 감각 인상의 알파벳처럼 읽을 수 있다고 믿고 이를 '관념 Anschauung'의 ABC'라고 부른 페스탈로찌의 방법론은 프

뢰벨에게 계승되면서 '놀이(감각)를 통한 교육'과 기하학적 형태의 교구-은물과 작업-로 구체화된 것이다.

일반적인 지식 전달이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학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이 개혁교육학의 특징으로 요약되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 보자. 이 두 축은 그로피우스가 언술했던 바우하우스의 문제의식과 이를 위한 대안적 토대로서 몬테소리 학교와 다르지 않다.

바우하우스의 기초과정은 이러한 개혁교육학의 맥락에서 보다 잘 설명된다. 1923년 바우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기초과정을 담당했던 요하네스 이텐에 따르면, 기초과정은 예술적 소양과 자질이 모두 다른 학생들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단계'였으며, 또한 기존의 아카데미교육을 통해 단 순히 모방하는 데에만 익숙했던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독창성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특히, 기초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학생들의 '창조력을 자유롭게 한다liberate', 즉 '해방시킨다'는 것이었다. '모든 쓸데없는 관습으로부터 탈피'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을 버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지식을 획득할 것을 요구받았다.

기존의 지식과 단절하고 완전히 '깨끗한', 무지의 상태, 즉 백지상태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던 바우하우스의 기초과정은 마치 학생들에게 '어린이'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듯 보인다. 이는 어린이가 잘못된 관행으로서의 교육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생각, 즉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다는 당시의 관념과 관계가 있다.

이는 바우하우스를 포함해 세기 말, 세기 초에 융성했던 개혁교육학적 시도들에 왜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이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과도 연결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시 부상했던 어린이 미술로부터 시작해 '어린이'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더니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4. 어린이와 모더니티

4-1. 예술가로서의 어린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린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한다. 수 멜번Sue Malvern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1880년경부터 최소한 191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세기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¹⁹⁾ 1898년 독일 함부르크 미술관에서 열린 '예술가로서의 어린이Das Kind als Knstler'라는 제목의 전시에는 어린 학생들의 드로잉, 페인팅과 함께 인디언 소년들의 그림, 에스키모족의 예술작품이 나란히 걸렸고, 이후 1914년까지 어린이 미술 전시는 유럽의 도시들에서 거의 매년 열렸다. 어떤 전시는 칸딘스키

16) 정기섭, "개혁교육학의 사상적 기초와 루소", <교육철학>, Vol.20, 교육철학회, 1998, pp. 168-169 참고.

17) 김재만, <교육사조사>, 교육과학사, p. 259, 정기섭(1998), p. 171에서 재인용.

18) 정기섭(1998), pp. 171-172.

19) Sue Malvern, "The Ends of Innocence: Modern Art and Modern Children", *Art History*, Vol.23, No.4, Basil Blackwell Ltd., 2000, p. 627.

등 모던 아티스트들이 직접 조직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이들은 어린이 미술품의 수집가이기도 했다. 1908년에 열린 분리와파의 'Kunstschau'전에서는 모든 전시실이 어린이들의 드로잉과 그림으로 채워졌다. '어린이 미술'을 발견해 미술 교육의 한 획을 그은 프란츠 치첵Franz Cizek이 6-1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의 결과물을 비엔나에서 전시한 것도 이 무렵(1908)이다.

'예술가로서의 어린이'전에 어린이들의 드로잉과 에스키모족의 작품이 나란히 걸렸다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원시미술primitivism의 부상은 당시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이해되었다. '예술가로서의 어린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제임스 설리James Sulley는 "밝고 번쩍이는 사물들, 화사하고 옅은 색깔, 강렬한 색채 대비, 깃털 같은 형태의 움직임을 좋아하고 장식을 선호한다"²⁰⁾는 측면에서 양자의 공통점을 설명했으며, 빌헬름 비올라Wilhelm Viola는 "어린이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원시미술을 공부하는 것"²¹⁾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탠리 헐의 '발생반복론'은 어린이 미술과 원시미술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숭배하는 경향의 근거가 되어주었다. 헐은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는 성장 과정에서 야만인에서부터 문명인까지의 모든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²²⁾

이 시기의 어린이 미술-원시미술을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는 이를 피로한 문명에 나타나는 낭만주의적 경향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출간된 슈팽글러의 저서, <서구의 몰락>(1918-1922)은 당시 서구 문명의 위기의식이 극에 달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이른바 '순수한' 시기에 대한 갈망은 루소를 연상시킨다. 타히티섬이나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예술의 영감을 얻고 이를 표현한 고갱이나 피카소의 그림은 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이상향'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한편, J. 애보트 밀러는 '예술가로서의 어린이'라는 개념이 미술 문화의 형성을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미래를 혁신시키는 도구로 보았던 교육자들과 지식인들의 바람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²³⁾ 이는 국가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배양하려는 관심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고, 이러한 문화적 혁신은 예술 산업에서 걸치장과 과도한 장식으로 유명했던 독일의 이미지를 쇠신하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20) James Sulley, "The Child as Artists", In Studies in Childhood, London: Longmans & Green Co., 1890, p.299, Arthur D. Efland, 박정애 옮김, <미술교육의 역사>, 예경, 1996, p. 224에서 재인용.

21) W. Viola, Child art and Franz Cizek, Vienna: Austrain Junior Red Cross, 1936, p. 14, Arthur D. Efland (1996), p. 271에서 재인용.

22) Arthur D. Efland (1996), pp. 221-222.

23) J. Abbott Miller, "기초학교", Ellen Lupton & J. Abbott Miller, 박영원 옮김, <바우하우스와 디자인 이론: 바우하우스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이해>, 서울: 국제, 1996,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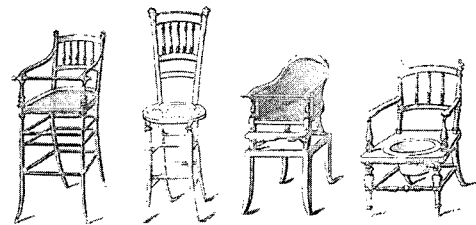
다.

바우하우스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사물들과 시각 생산물에서 나타나는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시각에서 '기원으로의 회귀'라는 당시의 경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형태의 시원을 찾아 거슬러올라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보편적인 시각 언어'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J. 애보트 밀러는 바우하우스에 '디자인의 유년기'라는 개념을 연결짓는다.²⁴⁾

시각적인 틀을 송두리째 쇠신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바우하우스의 이상적인 면모는 이러한 시각에서 적절히 들어맞는다. 그러나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의 이상이 다층적인 면모와 내부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왜 이 시기에, 그리고 왜 '어린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토록 주목을 받았는지를 좀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천진난만함'의 신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대량생산되기 시작한 시점이 '예술가로서의 어린이'가 각광받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에이드리안 포티Adrian Forty에 의하면, 19세기 말 이전에는 침대나 요람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제품은 거의 없었다. 19세기 초·중반에 들어 어린이용 가구를 가구의 한 카테고리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 때의 어린이용 가구란 어른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케인의자나 원저의자를 축소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림3] 19세기에 등장한 아동용 의자들

그러던 것이 19세기 끝무렵에 이르면,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형태면에서도 어른들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온갖 종류의 어린이용 가구-특별히 아이들의 신체나 필요에 맞춘 제품들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위생이나 청결을 강조한 제품들,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칠하거나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등의 장식이 있는 제품들-가 등장하게 된다. 포티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용 가구나 어린이용품들은 아이들의 건강이나 체격에 대한 아무런 인식없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물건에 중산층이 전례없는 지출을 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논한다.²⁵⁾

24) J. Abbott Miller(1996), p. 21.

25) Adrian Forty, 허보은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pp. 86-92.

실제로 '어린이'와 '아동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중세 이후 16-17세기에 큰 변화를 겪으며, 어떤 독립된 존재, 독립된 시기로 떠오른다. 중세 회화에서 드러나듯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판'에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가 성인 남자와 같은 근육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까지 했다. 사람들에게 '유년기'는 그저 어른이 되기 위한 '과도기'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고 설사 아이가 일찍 죽더라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너무 어린' 아이는 마치 진정한 인생의 문을 들어서지 않은 것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크기만 작을 뿐인 어른'이라는 생각은 어린이 의복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6세기 이후 아이에 대한 관념이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19세기가 가까워를 무렵까지, 어린이 의복은 성인 의복의 축소판으로, 신체를 인위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계속되었다—영국에서는 18세기 후기에 활동적인 어린이 의복이 출현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어린이 의복의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²⁶⁾

필립 아리에스Philip Ariès는 아동기에 대한 최초의 의식이 16세기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귀여워하기'의 형태로 출현했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어른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의 원천이 되면서 나타난 '귀여워하기'는 처음에는 어머니나 유모처럼 육아를 맡은 여성들의 감정이었다.

17세기에 나타난 아동기에 대한 두 번째 의식은 아이를 더 이상 '인형'처럼 재밌거나 매력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는다. 아리에스에 의하면, 이는 아동기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진지하고 진실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여기에는 '아이들의 경박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말과 17세기의 텍스트들은 아동심리학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심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에는 이들을 이성적 인간과 기독교도로 양성하겠다는 계몽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이 깔려 있었다.²⁷⁾

17세기에는 비로소 아동의 '천진난만함innocence'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아동의 천진난만함에 대한 생각은 실제 아이들이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일종의 신화로 굳어져왔다. '교육'과 '놀이'라는,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개념—프뢰벨에게서는 통합되어 나타나는—이 바로 이 개념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17세기의 사람들에게 '천진난만함'이라는 개념의 이면에는 도덕적 취약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교육에는 아동기에 대한 이중적 태도—한편으로는 삶의 타락, 특히 어른들에게 용인되는 성(性)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과 이성의 발달을 통해 아동

기를 단련시켜야 한다는 생각—가 전제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당시 교육의 관념에는 천진난만함은 유지시키고 무지함과 유약함은 없애버리겠다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셈이다.²⁸⁾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프뢰벨이 주창한 '놀이를 통한 교육'의 그럴 듯한 배경이 되어준다—천진난만함의 유지는 '놀이'의 형식을 통해, 무지함의 개선은 '교육'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아리에스는 근대 초의 가장 커다란 사건이 '다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언급한다. 신석기 시대의 연령집단과 헬레니즘 시대의 파이데이아가 그러했듯, '아이들 세계와 어른들 세계 사이의 차이와 이행'과정으로서의 교육이 재등장했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자의 차이를 알지 못했고, 그러한 이행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16세기 이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종교개혁의 지지자나 도덕론자들을 중심으로 번져나갔고, 종교 교단들은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아이가 인생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른들과 합류하기 전에 일종의 검역과 같은 특수한 처방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²⁹⁾

이선희, 신상옥은 18세기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 교육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부르주아들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재산과 사업을 인계하고 발전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어른 세계의 가치를 계승하는 자로서의 어린이를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어린이 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교육을 염두에 둔 데에는 아래 신분과의 차별성 획득이라는 의도가 있었다.³⁰⁾ 재산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사회적 신분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제가 된 것이다. 당시 부르주아 계층에게 교육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던지는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의 <고양이 대학살>에 잘 기술되어 있다. 단턴이 평범한 부르주아지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장 랑송이라는 인물이 읽은 도서목록에는 어린이 교육에 관한 문헌이 전체 도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³¹⁾

'놀이가 아이들의 기본적인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19세기의 관념 또한 부르주아 계급의 발상과 무관하지 않다. 1870년 영국 교육령으로 세워진 새로운 기숙학교의 방문객들은 노동계층의 아이들을 보면서 "(노동계층의 아이들이) 거리의 아이들처럼 전혀 아이답지 않아서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말하자면, '놀이'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산계층의 아이들이 노동계층의 아이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제였던 것이다.

한편, 수 멀번Sue Malvern은 어린이와 어린이 미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린이미술과 원시미술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관심이 어린이를 규정하는 근대 입법 틀의 전개와 병행해

26) 이선희, 신상옥, "18세기 후기 영국에서의 활동적인 어린이 의복 출현에 관한 고찰-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연관하여", <복식>, No.39, 한국복식학회, 1998, pp. 139-140.

27) Philippe Ariès, 문지영 옮김, <다동의 탄생>, 새물결, 2003, pp. 227-237.

28) P. Ariès(2003), pp. 202-218.

29) P. Ariès(2003), pp. 645-648.

30) 이선희, 신상옥(1998), p. 141

31) Robert Darnton,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지성사, 1999, p. 309-313.

32) A. Forty(2004), p. 89.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 초등교육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기 시작한 1870년 영국의 교육법령은 청소년 범죄, 어린이 매춘, 승낙 연령과 어린이 노동에 대한 법률 제정에 이어 1908년 어린이 법령으로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는 임금 노동에서 제외되어 국가와 가족에게 비생산적인 부채와 같은 존재(reliability)가 되며, 어린이의 내적 성향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비생산성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능했다³³⁾고 한다.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에 대한 신화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류가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4.3. 어린이 미술 혹은 순수함에 대한 강박증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 미술-원시미술과 결부된-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편으로 유년기는 소진되지 않는 재생의 원천이었으며, 동시에 세계의 끝에서 발견한 절대적인 순수함의 샘으로 묘사되었다. 리처드 쉬프가 언급했던 것처럼, 모던 아트와 관점에서는 마치 어린이가 시각적, 청각적 형상을 통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하는 것처럼 예술가가 되려는 어른은 어린이의 원초적인 감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³⁴⁾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흥미로운 것은 양자의 경우 어른이 되려는 어린이나 예술가가 되기 위해 어린이로 돌아가려는 어른 모두에게 교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Not to teach)'으로 함축되는 치제의 방법론은 이중적으로 보인다. 수 백번은 치제의 교육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실은 순진무구하고 천진하게 보이도록 '일구어진 cultivated' 그림의 스타일이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선구적인 예술 교사로서의 치제의 성공과 명성은 그와 모던 아트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치제의 어린이 작품에는 비엔나의 유겐트 슈틸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민속예술과 함께 '어린이다운(childlikeness)'에 대한 숭배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³⁵⁾ 어린이 미술에 대한 숭배가 모던 아트에서 일종의 흐름으로 부상한 후에는, 오히려 어린이 미술에 대한 평가가 모던 아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 미술은 이제 모던 아트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천진난만함'이라는 개념이 실제의 어린이의 내면과 무관하게 어른들의 관점이나 희망사항을 반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폐해를 입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어린이 미술 또한 실제의 현상과는 무관하게 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발터 벤야민은 클레가 '어린이에게서 독재적이고 탈인간화된 요소를 포착'³⁶⁾했다고 쓴 바 있고, 조르주 바타

이유(George Bataille)는 예술이 리비도의 본능을 해방시켜준다는 점에서 지저분하게 낙서하기를 즐기는 아이들의 본능이 가학적인 것³⁷⁾임을 언급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은 프로이드의 저서 <문명과 불만족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인용하면서, '어린이로의 회귀'가 뜻하는 바가 신선하거나 천진난만한 것이 아니라 신경증적인 것임을 밝힌다.³⁸⁾

어린이 미술의 파괴적인 측면은 한스 프리드리히 가이스트(Hans-Friedrich Geist)라는 한 학교 교사의 행보에 의해 파시즘과의 연결고리까지 나아간다. 어린이 미술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펴낸 책 <예술의 국민으로부터의 재탄생 The Rebirth of the Artistic out of the people>에는 국가 사회주의의 공공연한 선동과 함께 문명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진정한 민속 예술로서의 어린이 미술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다.³⁹⁾

여기에서 모더니즘 미학의 이중적 면모는 어린이미술의 양가적 속성과 근사(近似)하게 맞아떨어진다. 모더니즘의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 뒤에 어떤 불필요한 것도 배제하겠다는 순수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놓여 있으며, 이것이 다분히 파시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어린이미술 역시 '천진난만함'이라는 표피 뒤로 가학증의 쾌락, 독재자의 면모, '부패되지 않은 원천'에 대한 파시즘적 갈구를 숨기고 있었다.

5. 결론

프로벨의 교육방법론과 바우하우스 기초과정 간의 유사성을 밝히는 작업에서 시작해,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교육 모델의 근저에 흐르고 있었던 개혁교육학의 움직임을 훑고 19세기 말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떠올랐던 '어린이'와 유년기의 개념, 그리고 이 개념들과 모던 아트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까지, 우리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 기술한 것처럼,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바우하우스의 면모를 파악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프로벨과의 연관관계, 다시 말해 '아동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육학의 흐름들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측면의 바우하우스를 발견하는가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여행에서 무엇을 수확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2장에서 프로벨과 바우하우스의 연관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그 자체에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씨앗'과 같은 존재로 교육 대상을 바라본다든지, 교육과 놀이가 결부되어 있으며, 교육은 놀이를 통해 풍부해진다고 생각한다든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도구로써 기

33) Sue Malvern(2000), p. 629.

34) Richard Schiff, "From Primitivist Phylogeny to Formalist Ontogeny: Roger Fry and Children's Drawings", in Jonathan Fineberg Ed., *Discovering Child Art-Essays on Childhood, Primitivism and Moder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35) S. Malvern(2000), p. 628.

36) Walter Benjamin, "Old Toys" in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1927-1934, vol. 2,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 101.

37) Georges Bataille, "L'art primitif" in Denis Hollier Ed., *Oeuvres Complètes*, Paris: Gallimard, 1970, p. 252-253, Sue Malvern(2000), p. 630에서 재인용.

38) Christopher Green, "The Infant in the Adult: Joan Miró and the Infantile Image", Jonathan Fineberg Ed.(1998), pp. 229-230.

39) S. Malvern(2000), p. 630.

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세 가지 면에서 양자는 분명한 유사성을 보였다.

3장에서는 바우하우스가 아카데미로 대표되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세롭고 실험적인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계속적인 연계관계 속에 놓여 있었음을 보였다. 유치원 혹은 새로운 교육실험과의 연계는 모홀리-나기에 의해 뉴 바우하우스에서도 계속된다. 2장에서 살펴본 프리벨의 교육방법론은 바우하우스가 참고로 했던 유치원 운동,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개혁의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말하자면, 바우하우스와의 연관성 속에 파악한 프리벨의 교육방법은 한 사람의 개인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례라기보다는, 개혁교육학의 맥락에서 가장 많이 참고-모방 혹은 발전-되어온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이다.

4장에서는, 개혁교육학의 핵 중 하나로 언급되는 '아동으로부터의 교육'이 어떠한 맥락에 놓여 있는가를 살폈다. 이는 바우하우스와 프리벨의 연관성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는 왜 바우하우스가 아동 교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세기 말 세기 초의 개혁교육적 움직임들은 왜 아동 교육의 개념을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이 질문은 세기 말부터 부상했던 어린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어린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태어나 성장했는지, 그것이 세기 말 어떻게 하나의 신화로까지 굳어져왔는지를 고찰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린이의 천진난만함'이란 어른들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거, 당시 숭배의 대상이었던 어린이 미술 또한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무관하게 어른들의 시각 혹은 욕구에 따라 '길러져' 왔음을 추적하였다.

카시와기 히로시는 "기계 테크놀로지가 창출한 시스템을 원리로 하면서 과거의 통일성을 가진 사상에서 스스로의 근거를 찾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에 바우하우스 실천의 모순이 있었다"⁴⁰⁾고 지적했지만, 바우하우스의 모순은 아동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통적인 교육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지식을 버리고 마치 어린이와 같은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바우하우스는 투소와 같은 낭만주의적 꿈을 꾸고 있었으며, 프리벨처럼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서의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마치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이들의 '순수함'에 대한 집착은 차라리 일종의 강박증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린이미술이 '천진난만함'이라는 신화 뒤에 숨기고 있는 가학적이거나 독재적인 요소는 모더니즘에도 그대로 겹쳐진다.

더욱이, 바우하우스가 기대고 있었던 실험적인 교육으로서의 아동 교육은 부르주아 계층의 선장에서 양분을 얻어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니만큼, 처음부터 바우하우스의 민주적인 이

상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바우하우스가 아카데미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동교육과의 연계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지만, 바우하우스는 아동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꿈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어쩌면 10년을 조금 넘긴 바우하우스의 짧은 역사(1919-1933)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들이 기이하고 불편한 동맹관계를 맺으며 지속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학교의 폐쇄는 결국 나찌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미 내부의 모순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Philippe Ariès, 문지영 옮김,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 Norman Brosterman, 프리벨교육연구소 옮김, <유치원의 발명>, 프리벨, 2003
- Robert Darnton,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프랑스 문화사 속의 다른 이야기들>, 문학과지성사, 1999
- Arthur D. Efland, 박정애 옮김, <미술교육의 역사>, 예경, 1996
- Jonathan Fineberg Ed., *Discovering Child Art-Essays on Childhood, Primitivism and Modern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 Adrian Forty, 허보윤 옮김,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일빛, 2004
- Walter Gropius, "The Theory and Organism of The Bauhaus", translated of "Idee and Aufbau des Staatlichen Bauhauses Weimar", Herbert Bayer, Walter Gropius, Ise Gropius (Ed.), *Bauhaus 1919-1928*,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1975
- Johannes Itten, *Design and Form: The Basic Course at the Bauhaus and later*, Litton Educational Publishing, 1975
- J. Abbott Miller, "기초학교", Ellen Lupton & J. Abbott Miller, 박영원 옮김, <바우하우스와 디자인이론 : 바우하우스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이해>, 국제, 1996.
- Sue Malvern, "The Ends of Innocence: Modern Art and Modern Children", *Art History*, Vol.23, No.4, Basil Blackwell Ltd., 2000
- Frank Whitford Ed., "The Dawn of Change in Art Education", *The Bauhaus: Masters & Students by Themselves*, New York: The Overlook Press, 1993.
- 카시와기 히로시, 최범 옮김, <디자인과 유토피아-모던 디자인은 무엇을 꿈꾸었나>, 홍디자인, 2001
- 광노의, <프리벨의 유아교육이론 연구>, 학민사, 1990
- 이선희, 신상욱, "18세기 후기 영국에서의 활동적인 어린이의 복 출현에 관한 고찰-투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관련하여", <복식>, Vol., No.39, 한국복식학회, 1998
- 정기섭, "개혁교육학의 사상적 기초와 루소", <교육철학>, Vol.20, 교육철학회, 1998

40) 카시와기 히로시, 강현주, 최선녀 옮김, <20세기의 디자인>, 조형교육, 1999, p. 96.